

변방 위기 호남정치, '포스트 DJ' 키워야 미래 있다



1968년 7월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들어선 광주역이 최근 KTX정차역에서 배제되면서 폐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역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근린공원 조성·철도박물관 건립 바람직

광주시 2012년 내놓은 광주역 폐쇄 따른 부지 활용 방안

광주역이 KTX정차역에서 배제되면서 하루 왕복 16편 정도의 세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만 운행돼 역사 인근 도심 공동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광주시를 상대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의 '1도시 1거점역' 원칙에 따라 이미 광주역의 KTX정차역 배제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도 시민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구청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주 KTX진입이 무산된 이후 전문가들에게 광주역 활성화 대책을 문의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광주역 폐쇄 방침만 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광주역 폐쇄에 따른 활용과

문화인프라 연결 거점으로 일부 상업지구 지정 건의

관련한 자료는 광주시가 지난 2012년 12월 내놓은 광주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과 지난 2009년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연구위원이 발표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신축역사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전부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광주역이 세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정차역으로 전락한다면 역세권의 기능 유지보다는 기존 역사부지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 지구 등 광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주요 문화 시설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의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역 부지에 공연·전시장 등 문화시설을 유치해 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고, 호남 철도의 역사성 보존을 위해 근대역사 박물관(철도박물관 포함)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의 대표적 도시재생 사업인 푸른길 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푸른길 공원 문화관 등을 조성해 푸른길 조성과 관련한 시민활동과 과거의 흔적, 사업과정 등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역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역 폐쇄지역 일부를 상업·업무 복합 시설지구로 묶어 구도심의 상업·업무 중심 기능을 갖추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축재해보험 지원 선착순으로 일원화 농식품부 가입 절차도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방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지자체 별로 사전 선정, 선착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대상을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규계약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당 지방비 지원상한액은 지자체별 재정사정고 정액에 따라 75만~500만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보험 가입시 농가가 보험료를 먼저 낸 뒤 지방비 지원액을 환급받던 구조를 개선해 지원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합뉴스

'호남 표심' 길을 묻다

차세대 지도자 양성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권이나 당권에 도전할만한 대중성과 비전을 지닌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 새정치연합 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박지원 의원이 석패한 이후 호남 당원들에게서 나온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키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진영의 본산이자 새정치연합의 뿌리인 호남이 '정치적 변방'으로 밀리지는 않는지를 우려하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양당에서는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탈 호남'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도 선거 때면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지난 대선에서는 호남만 문제를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호남 정치가 아권의 중심축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뒷발 내지 불모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정치 복원'이

선거때만 '반짝 텃밭' 야권 중심 역할도 못해

계파·기득권 탈피 대권주자 키울 발판 시급

이슈로 부상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과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주역이자 정권 재창출의 핵심 동력이었던 호남이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것은 분열과 기득권의 폐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이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 불신과 갈등 구조가 구축되면서 전반적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국회에 진입한 신진 국회의원들이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지 못하고 '무늬만 다선'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파를 의식한 양다리 정치와 상향식 공천의 허접한 기득권 구축을 통해 지역 정치권의 구조는 갈수록 왜곡되고 허약해졌다는 평가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통 부재와 불신은 호남 정치의 역량을 크게 위축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 문화가 점차 뿌리를 내리면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호남 민심이 지역 정치인을 키우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박지원, 주승용, 우윤근 의원 등 정치적 역량을 갖춘 중진들과, 치열한 도전 정신을 보이는 초·재선 의원들은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통해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파와 기득권에 기생하는 생계형 정치인들과 현실에 안주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호남 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고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정치의 미래는 호남 민심의 각성과 결집으로 만들어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새정치연합의 전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과제를 던져준 셈"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작년 세수결손 11조...3년 연속 '핑크'

재정건전성·경제성장 악화 우려

국세가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빚으면서 국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수 결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세수 결손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이었던 세수 결손은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해에는 10조9000억원에 달해 10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정부의 낙관적인 경상성장률 전망 등을 근거로 올해에도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수 결손이 곧바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않지만 장기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기존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기초연금 등 복지에 들어갈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도 투자를 해야 돼 돈 쓸데는 많은 데 세수 결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복지 등에 투입될 재정 수요는 경기회복,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이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확장적 거시정책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병행하면 경기가 살아나 자연히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씬숨이를 조정하면 재정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2015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2017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버리고 현실적인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으로 낙관적 경제전망을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경제전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설맛!

해남군 직영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미소

땅끝해남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농수특산물 선물특선**

이번 설 선물은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 해남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소중한 분들께 마음을 전하세요.

061-537-1472(일사천리)
080-859-1100(무료전화)

검색창에 **해남미소** 를 치세요

www.hnmiso.com / www.해남미소.한국

해남미소 온라인 특별 할인판매 (110여종)

설맞이 경품이벤트

2015. 1. 16~2. 15(1개월)